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잠재력과 과제

CHUNGNAM FORUM



충청남도과 충남발전연구원은 7월 5일 오후 3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경기·충남지역주민, 유관기관, 관련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경기 상생발전의 잠재력과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27일 「충남·경기 상생발전 협약체결」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충남·경기 양 자치단체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 전문가들의 견해를 끝까지 경청하고 주제발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진영환 국토연구원부원장은 『자치단체간 협력과 공동발전』이라는 주제를 통해 "충남·경기 상생협력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경기도, 그리고 천안시·아산시·서산시·당진군과 평택시 등 자치단체 간의 신뢰와 협력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공 가능성이 큰 대상사업 선정, 참여주체의 인식전환, 수평적 파트너십과 명확한 역할분담, 협력성과의 가시화 및 공유, 경쟁요인의 제거와 조정기능의 강화, 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형진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은 『경제자유지역 기본구상 및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과 경기도가 환 황해경제권의 핵심성장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반해 항만시설 부족, 각종 국제교류시설의 부족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자유구역 추진의 2단계 발전방안을 강구해 1단



계는 오는 2015년까지 산업생산기능 및 항만물류유통기능과 관련된 사업과 지구개발에 초점을 맞춰 주거, 교육, 국제교류, 관광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강영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충남·경기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남·경기 초 광역혁신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고 초광역클러스터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상생발전기획단』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신규설립과 함께 밸류체인을 고려한 기업유치전략의 구사,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권역공동 전략산업 설정,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실시, 지역브랜드 컨셉의 설정과 원스톱 솔루션의 제공 및 정보발신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허제완 중앙대교수,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안철식 산업자원부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혁신정책연구센터소장 등 4명의 토론자들이 나서 충남·경기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웅 원장은 "충남·경기 양 지역 상생발전 협약에 의거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상생발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과 경기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

진영환 | 국토연구원 부원장

충남도와 경기도는 道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양도간에 협력이나 공동발전전략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아산만의 항만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항만명칭에 대한 갈등과 함께 행정구역 경계문제를 가지고 접경지역의 해당 시·군간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그러나, 올해 1월에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역상생발전 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인접도간에 협력과 상생을 위한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충남도와 경기도간의 개발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양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개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아산만권 지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남도와 경기도의 광역적 발전을 위한 노력은 1990년대부터 가시화 되었다. 1990년대초 아산만지역이 신산업지대로서 국토공간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함에 따라 항만, 산업단지, 도로, 철도, 배후도시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 1993년에 그 당시 건설부 주도로 광역아산만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

동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의 집중되는 개발압력을 아산만권에서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인천항 대체항으로서 아산 신항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의 산업입지 수용을 위해 포승, 고대, 부곡, 석문 등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아산만권 배후도시로서 천안과 평택, 당진지역에 신도시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새로운 대규모 항만의 건설과 기업의 높은 입지 수요로 볼때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은 엄청날 것으로 판단된다. 대중국 관문항인 아산신항을 중심으로 천안, 아산, 당진, 평택의 첨단산업과 물류, R&D기능을 연계발전 시키면 아산만지역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핵심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향후 과제는 과연 해당 지자체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쾌적한 환경의 부가가치 높은 지역

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아산만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밀려드는 기업의 입지수요를 계획적으로 수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서 직주근접의 쾌적한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 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듯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통팔달의 지역간 간선교통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충남도와 경기도, 그리고 아산시, 천안시,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신뢰와 협력의 분위기 조성이다. 나아가서,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직의 설치,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의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 추진의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계획수립, 사업집행, 사업평가 및 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서 해당지자체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개발사업 추진과 비교하여 보다 짧은 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양 지자체의 공동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충남·경기 상생발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및 파급효과

박영진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센터 소장

충남과 경기도는 황해경제권의 핵심성장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충남과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근접한 동북아 경제권의 첫 관문이면서 환 황해경제권의 거점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지만, 항만시설 부족, 각종 국제교류시설의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발수요와 시급성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추진의 2단계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2015년까지 산업생산기능 및 항만물류유통기능과 관련된 사업과 지구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주거·교육·국제교류·관광 등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하며, 2단계사업은 1단계사업시행결과를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

사업의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지방공사, 민간 및 제3섹터 형태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추진의 직접적인 효과는 평

택·아산에 국한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전국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연구 및 첨단산업 유치에 따라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할 수 있고, 그동안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해 왔던 경기도는 새로운 재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충남·경기 초광역 클러스터 구축방안

강영주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은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클러스터의 효과가 광역시·도 단위 지역에 한정된다는 암묵적 가정 하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계획이 시·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혁신5개년계획은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되어 지역별 RIS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계획은 행정역량 확보 및 추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 경제권과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산업의 효율적 육성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자치단체별 계획의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친 초광역 혁신클러스터는 지자체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으나, 인근지역에 있는 특화사업간 또는 산업·기술적 상호연계를 촉진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충남·경기 초광역혁신클러스

터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분석하고 초광역클러스터의 성장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상생발전기획단」의 설립·운영, 기업의 신규설립과 함께 밸류체인을 고려한 기업유치전략의 구사,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권역공동 전략산업 설정, 공동연구개발 지원사업 실시, 지역 브랜드 컨셉의 설정과 원 스톱 솔루션의 제공 및 정보발신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과 함께 초광역혁신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지역의 상생협력의지라고 할 수 있다.

강력한 양 지역의 상생·협력의지가 있을 때 혁신클러스터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들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광역클러스터의 지역혁신체제를 이루는 각 주체들은 충남경기 초광역클러스터의 경쟁지역은 세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양 지자체는 단일권역으로서의 의식 고취를 위해 권역 내에서의 불균형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